



미 실업률,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국의 1월 실업률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신규고용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.

- 1월 실업률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비해 0.2%p 하락한 8.3%를 기록함.
 - 실업률은 2011년 8월 9.1%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.
- 노동부는 실업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상수준이라고 밝힌 5.2~6.0%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, 특히 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전월에 비해 0.4%p 상승한 42.9%로 나타났다고 발표함.
- 2월 3일 노동부는 1월 신규고용자수가 시장 전망보다 10만 명 많은 24만 3,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, 정부 고용은 소폭 감소한 반면 제조업, 서비스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■ 한편, 노동시장이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, 버냉키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정상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함.

- 노동시장의 개선조짐을 나타내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연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.
- 그러나 2월 7일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실업률이 수많은 구직 포기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만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여전히 노동시장은 정상수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함.
- 버냉키는 아직 경제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제로 수준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2014년 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.

(LA Times, 2/3 등)